

기가 무선통신 시대, 가입자엔 '그림의 떡'

이동통신 3사가 1G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해 '기가 무선통신' 시대를 열었다고 자축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현행 요금제에선 이런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IT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고 2Gbps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올해 안에 선보인다. 이는 HD급 고화질 영화 1편을 6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최고 1.17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무선통신 서비스를 최근 상용화했다. 18GB 용량의 UHD급 초고화질 영화 1편을 불과 2~3분 만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달 중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기존

현행 데이터 요금제론 영화 몇 편 다운로드 받으면 기본 소진

LTE 망·와이파이 망도 충분치 않아... 요금제 크게 변화할 듯

LTE 망과 와이파이 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신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 것이다. 더구나 이동통신사들은 2020년까지 5세대(5G) 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5G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최고 20Gbps에 달한다. 1초에 1GB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다.

그러나 통신 서비스가 진화하면서 가입자들의 데이터 소비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도 영화 몇 편 다운 받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전부 소진할 정도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가 월 10만원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한 달 동안 35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KT는 월 9만 9000원에 30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본 데이터를 다 쓰더라도 하루 2GB를 추가 사용할 수 있어 '데이터 무제한'을 표방하지만, 고화질 영화 1~2편만 다운 받으면 추가분이 금세 소진돼 '무제한'이라는 광고가 무색하다.

1Gbps 이상의 속도를 내려면 LTE 망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망이 필수적인데 시중에 설치된 와이파이 망이 충분하지 않아

어느 곳에서나 빠른 속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행 요금제 가입자 입장에서선 날아갈 듯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KT는 올해 연말까지 LTE 망과 와이파이 망을 연동하는 '기가 LTE'를 통해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에서 차감하지 않는 판촉 행사를 하기로 했다. KT는 올해 안에 새로운 과금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와 비슷한 판촉 행사를 할 계획이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데이터 요금제 출시는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며 "5G에 가까운 서비스가 나올 2~3년 내로 데이터 요금제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여름철 냉방기기 가동 부담 줄듯

정부가 오는 7~9월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올해 여름은 냉방기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한반도의 여름철 기온이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가정마다 에어컨이 필수 가전제품이 됐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속수무책이 에어컨을 켜는 가정이 많지 않다.

지난 2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되는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일반 컴프레서 대비 성능은 높고 소비전력은 획기적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실내가 덥고 사람이 많을 때는 강력 냉방 기능을 가동하지만 설정 온도와 실내 온도가 비슷할 때는 냉방을 약하게 해 에너지를 절감한다.

삼성전자는 2002년 국내 최초로 가정용 에어컨 인버터 컴프레서를 개발해 양산에 들어갔다. LG전자가 올해 초 선보인 '듀얼 에어컨'의 경우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평균 소비전력이 270와트(W)에 불과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올레 멤버십 다운·업·프리 시즌3'

KT가 '올레 멤버십 다운·업·프리 시즌3'을 통해 '불금(불타는 금요일)'혜택과 시원 여름 엔터테인먼트 할인을 제공한다. 경기도 용인 캐러비안베이에서 KT 모델들이 '올레 멤버십 다운·업·프리 시즌3'을 소개하고 있다. <KT 제공>

휴대전화 데이터요금 전쟁 재점화

CJ헬로비전, 최저 2만원대 초반 유심 데이터요금제 출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촉발된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가량 저렴한 2만원대 초반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처음 내놓으며 휴대전화 요금 전쟁의 전선

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브랜드인 헬로모바일은 국내 최저 요금으로 망내의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풀고,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요금에 차등을 둔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 12종을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입자 87만명을 거느린 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은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알뜰폰 고객들이 이탈할 조짐이 나타나자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전격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알뜰폰 업계에서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물꼬가 터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가격 통신비 인하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은 최저 2만900원(이하 부가세 별도)부터 시작하는 'The 착한 데이터 유심 요금제' 5종과 최저 2만8900원부터 출발하는 '더 착한 데이터 요금제' 7종으로 이뤄진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고객 이탈을 막는 것을 넘어 내시 기존 이동통신 3사에서 역으로 고객을 빼앗아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스마트폰 화면 크기 5인치 가장 선호

미·영 소비자 설문 결과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면 크기는 5인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지난해 하반기 미국과 영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화면 크기가 5인치인 제품을 가장 선호했다고 최근 밝혔다.

SA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23%가 선호하는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5인치를 꼽았다. 두 번째로 인기 높은 화면 크기는 5.3인치로 16%의 선택을 받았다. 3위와 4위는 5.5인치, 4.7인치 제품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더 큰 화면을 선호하는 경향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SA가 지난해 상반기에 시행한 같은 조사에서는 아이폰6의 화면 크기인 4.7인치 제품이 가장 인기 높았다. 6개월 만에 선호하는 화면 크기가 0.3인치 커진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스마트폰 화면 크기는 5인치로 나타났다. 다만 정작 5인치 화면 스마트폰은 출시 2년이 지난 제품들이 대다수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와 LG전



자의 옵티머스GK, 팬택의 베가아 이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와 어떻게 보면 제조사들이 소비자 취향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흥미롭다"고 말했다. 한편 SA는 화면 크기와는 별도로 스마트폰 두께 선호도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더 얇은 두께의 스마트폰을 선호했지만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기꺼이 두께를 포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SA는 "소비자들은 얇은 두께의 디자인보다는 배터리 사용시간을 더 우선시한다"면서 "제조사들은 배터리 사용시간과 비례하는 두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주의 추천앱

애플워치 국내 출시일이 오는 26일로 확정되면서 많은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을 들뜨게 하고 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애플워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한다.

시스코 웹엑스 / 시스코 / 애플워치

기업용 회의관리 애플리케이션이다. 웹엑스를 통해 회의방을 개설하고 참가자와 위치를 통해 대화를 할 수 있다. 참석자의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음소거와 음성 켜기 기능을 활용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Boiled Egg Timer / The App Developers / 애플워치

해도 해도 잘 모르는 적당한 계란 삶는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다. 반숙, 완숙 등 삶는 상태를 지정해두면 시계에서 타이머가 작동하며 불을 꺼야할 시간을 알려준다.



Day One / Bloom Built, LLC / 애플워치

손목시계로 다양한 방식의 기록을 남기는 앱이다. 손목시계에 적합한 형태의 노트 형식을 제공하고 음성메모·사진메모·날씨기록·지역 태그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소 ZOOOS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 ① 신축 4층건물(총층 13개)
- ② 월세 인기종류 / 임대 걱정없음
- ③ 3층 점포
- ④ 2층~3층 원룸 10개
- ⑤ 4층 안집 투룸 1개

월수익 530만 매매가 7억 1천

- ① 북구 문흥동(전대후문 5분거리) 월수익 540만 매매가 8억 5천만
- ② 북구 문흥동(147개) 월수익 430만 매매가 7억 4천만
- ③ 북구 용봉동(50평, 건150평) 월수익 450만 매매가 8억
- ④ 수원지구 수원동 3층건물 신축(토144, 건260평) 매매가 16억 월수익 800만
- ⑤ 수원동 4층중 3층 85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 5천만

010-6834-4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①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월수익 42만 매매가 8천만	⑥ 남구 백운동 대흥1차24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500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월수익 50만 매매가 9천만	⑦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010-6832-9700

법원경매

(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추천 특수물건
1. 서구 금로동 7층중7층(토180㎡, 건295㎡)감정가 6억6천→최저가 2억3천 2. 광산구 월계동42㎡, 건135㎡)감정가 2억→최저가 1억4천(점당상가) 3. 서구 지평동(토44.77㎡, 건257.71㎡)감정가 6억1천→최저가 4억3천	1. 서구 화정동 (근린주택) (토150평, 건276평) 1층주차장(10대가능)/2층음식점 3층노래연습장/4층주방 감정가 12억→최저가 8억4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2. 북구 운암동 (근린시설) (토 160평, 건283평) 개발기회추천 투자적합 (1층/상가, 음식점, 사무실2~3층사무내) 감정가 8억5천 →최저가 5억9천7백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3. 광산구 산기동(주유소) (토430평, 건170평) 신기병원 북쪽측 인근, 하남대로변 감정가 15억7천→최저가 11억
공장/모텔/주유소	4. 동구 대인동(근린시설)(토236평, 건602평) (은행, 소방서, 우체국주변상권중음) (지하, 사무실/1층점포/2층~4층사무실) 감정가24억7천→최저가14억
직원 구함	5. 담양 남면 구산리(교육시설/펜션) (토1427평, 건1251평) 개발기회추천 투자적합 감정가 32억→최저가 7억4천

남, 여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우실뿐!
경매직원 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010-7384-7800

경매

실전교육반모집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회까지) → 노후대비 적합

경매직원모집
경매컨설팅
같이 근무할 직원 모집합니다.

남 여 직원 모집합니다!
부동산 기획개발까지 배우실뿐

062-382-5500
010-6832-9700